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25.(일) 11:00,
(지면) 2023. 6. 26.(월) 조간

배포 2023. 6. 23.(금) 오후

안전한 여름휴가 위해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 안전비품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태풍 내습 대비 상황 등 종합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 여름 휴가철에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26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총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해당 기간 중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02항로 154척 전수 점검

이번 점검은 해사안전감독관(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권역별 국민안전감독관(15명)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구명조끼 등 안전비품 관리 상태, 여객편의시설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승·하선 절차 준수 및 차량 선적 관련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관리실태 등

또한,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들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태풍 내습에 따른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특별교통기간인 7월 25일 전까지 시정하도록 하여 섬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황진실 (044-200-5738)

참 고

하계 휴가철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사진

